



왕십리

2007년
9 월호

평신도 신학 / 교육목사 문병호 - 하나님 나라의 후사 : 맞추어서 명하고 가르침
 하나님나라 사람들 -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노효철 피택장로
 기획특집 - 수도노회 모범 교사 릴레이 인터뷰



이귀남 집사

“이귀남 집사님은 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시고 가정에서도 효자로, 신실한 남편으로 자상한 아버지로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셔서 칭찬하고 싶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이귀남 집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실하신 믿음 생활에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묵묵히 봉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찾아 행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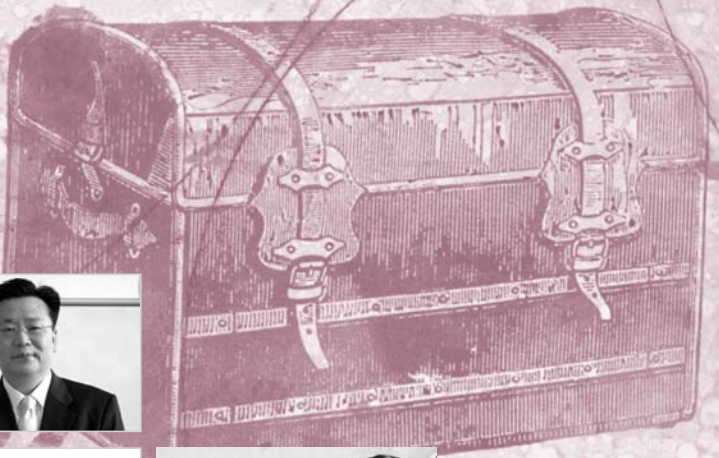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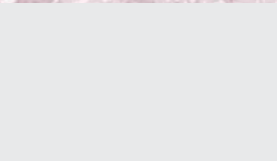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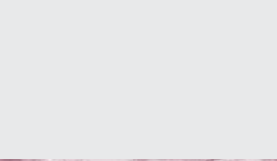
차분한 심성이시니 늘 열심과 진심으로 대로를 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봉사하는 모습에 감명받습니다.

찬양이 좋아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시온찬양대, 엠마오 중창단) 찬양 속에서 지내신다는 이귀남 집사님 이해승 목사의 전도로 왕십리 교회 고등부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유년부 교사와 군중으로도 섬기셨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고참들로 인해 구타도 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는 집사님을 보고 고참들이 내무반 대표(?)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건실한 모습을 가지신 집사님. 자식들에게는 대화로 다가가시며, 믿지 않았던 아내를 하나님께 이끌고 심장 수술로 많이 약해진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주일마다 먼 거리까지 가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집사님의 모습에서 주님께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내공이 쌓여 있음을 봅니다.

“저는 찬양이 좋아 우리 교회에 찬양이 부흥하길 원해요. 10년 역사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의 열기 가득한 모습을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이 노래로, 악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교육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윤혜 기자



Contents



2007. 9월 호

여전도연합회 수련회에서
각 전도회의 장기자랑

- | | |
|--|---|
| <p>2 칭찬합니다
· 그리스도의 편지 \ 김향숙 집사</p> <p>4 출애굽단상
· 우렁이 각시</p> <p>5 평신도 신학
· 하나님 나라의 후사 맞추어서 명하고 가르침</p> <p>9 독자투고
· 대만 단기선교를 다녀와서</p> <p>10 기획특집
· 수노노회 모범교사 릴레이 인터뷰</p> <p>14 하나님 나라 사람들
·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 노효절 피택장로</p> <p>16 전도이야기
· 사랑과 화평의 근원이신 성령님</p> <p>19 일상의 작은 그림
· 세월의 깊은 맛</p> | <p>20 선교편지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p> <p>22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 식품 표시에 대한 오해, 바로 알고 바로 먹</p> <p>24 자</p> <p>28 가정예배</p> <p>29 冊이랑 樂
왕십리 이모저모</p> |
|--|---|


우렁이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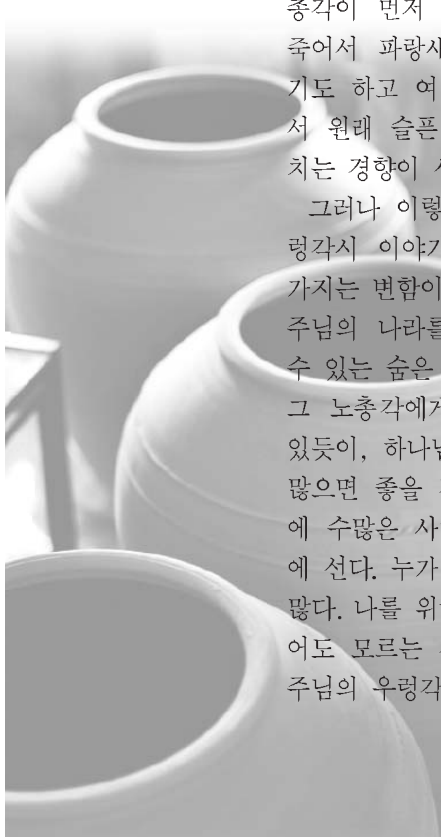
담임목사 오치용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우렁각시 이야기는 그 결말이 다양하다. 해피엔딩도 있고 슬프게 끝나는 것도 있다. 어느 노총각 농사꾼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마음으로 말한다.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와 먹고 사나?” 그런데 논두렁에서 대답이 나온다. “나랑 먹고 살지.” 우렁이에게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우렁이를 집에 갖고 가서 독에 넣었는데, 아침에 보니 아주 맛있는 쌀밥과 반찬이 마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후 그런 일이 반복되니 몰래 숨어서 지켜보게 된다. 그러다가 우렁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노총각의 소원대로 함께 살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애기의 결말은 여러 가지이다. 노총각이 먼저 죽어 파랑새가 되고 여인도 죽어서 파랑새가 되기도 하고 참빗이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원래 슬픈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결말과 달리, 우렁각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외로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숨은 도움이 많다는 것이다. 정말 그 노총각에게 우렁각시 같은 내조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봉사자가 많으면 좋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렁각시 같은 자리에 선다. 누가 나를 돕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우렁각시들이 도처에 많다.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사랑의 갈급함을 해결 받는다. 때때로 우렁각시 같이 살면서 고난을 겪기도 한다.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감추어진 고난 말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아름다운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헌신을 귀하게 값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숨겨진 도움을 받았던가. 학창시절, 나의 친구들이 주었던 그 숨겨진 도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고등학교 후배 하나와 대학을 같이 다닐 때 그 후배가 나에게 빌려 준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 후배의 이름까지 잊어버린 나의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의 곤란을 위해 안타까워 해주셨던가.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마음을 부어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우렁각시들은 지금도 주님을 위해 그분의 지체를 섬기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돕는 봉사의 손길, 나눔의 향기들이 교회에 곳곳을 채우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래도 우렁각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까이 있어야지, 그리고 볼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돕는 분들을 진정 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후사 맞추어서 명하고 가르침



문병호 교육목사

I. 성경적 후사교육 원리

[1] 교육

교육(教育)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양육’ 한다는 뜻이다.

가르친다(教)는 것은 지식적 측면이 강하고 양육(育)한다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육은 단지 관념에 머무는 죽은 지식(知識)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지성(知性)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참다운 교육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아우른다. 교육은 정원의 화초를 가꾸는 일이나 집안에 애완견을 기르는 일과는 다른 것이다. 교육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중에 오직 사람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 1:27). 그러므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영광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창 1:28).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후손을 대대로 이어가게 되었다(창 2:24).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어가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남자와 여자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 2:25).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렸으며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도무지 영화롭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人間改造)를 부단히 주장해 왔으나,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



구원은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은혜의 자녀가 된다. 이제는 은혜로 산다. 은혜 가운데 거듭났으므로 은혜 가운데 기록해진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역사한다. 예배도 은혜며 삶도 은혜이다. 천국의 상급도 은혜의 선물이다.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중보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 받아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간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녀에게는 세상의 자녀와는 전혀 다른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3] 맞추어 가르침

요사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하는 자는 교육 받는 자에게 맞추어서 가르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를 지으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자신을 볼 수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며, 알 수가 없으며,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요, 의사요, 교사로서 나타내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아버지로서, 아픈 것을 고치시는 의사로서, 그리고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교사로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교육은 바로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체질에 맞게 약을 조제하듯이, 가르침도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4] 하나님 나라의 후사

맞추어서 가르치려면 먼저 교육을 받을 아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인가? 주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아이들은 누구인가? 교회 교육의 출발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이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주셨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속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셔서 그의 택한 백성을 지정하신다. 성도가 바로 그 택한 백성이다.

둘째로,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고 거듭난 백성이다. 보혜사 성령

을 받으면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거듭난 백성이나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산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긍휼의 자녀이다. 이제는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이나, 의에 매여 사는 의의 종이다. 전에는 죄에 매여서 의에 대해서 자유했으나, 이제는 의에 매여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제는 본질상 은혜의 자녀로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 가운데 산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후사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명예를 벗어 버리고 이제 “주님의 명예를 배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 명예는 가볍고 그 짐은 쉽다. 이 명예는 자유로운 은혜의 명예, 사모할 명예이다. 이러한 명예는 새의 날개와 같다. 이 날개로 나는 것이 후사의 복이다. 이러한 지고한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받도록 선택된 후사가 우리 자녀임을 깨닫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야곱의 열 두 지파라는 개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야곱의 후손은 누구인가? 야곱이 압브람에서 기도했을 때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나 응답을 받았다(창 32:13-32). 1) 곧 야곱의 후손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백성이다. 2) 그리고 이름이 야곱(불잡는 자)에서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김)로 바뀌었다-신분이 바뀐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새 이름을 얻는다. 3) 그리고 속한 땅이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와 같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교육해야 한다.

5] 후사교육

그렇다면 언약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로, 천국의 상속자의 신분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세상의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교육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를 낳는 직분이 아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분이다(딤후 2:14; 히 8:10). 주일학교나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은 영원 전에 택함 받은 언약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아이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겨져야 한다(벧전 2:9).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뚜렷한 자의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백적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게 해야 한다. 고백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지성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로,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나 신분의 고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롬 2:11; 갈 2:6; 엡 6:9; 골 3:25).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기르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십자가지기의 일을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주의 일 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명령하신 분이 이루심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 제물을 주신 분이 이루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 것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 때, 이는 그들이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여겼을 때였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만 받으시기 원하신다. 가인은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 것도 받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며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주신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물을 드렸다. 과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실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가? 그것은 오직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림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의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은 특히 교회를 어린 아이에게는 유모요 더 자란 아이에게는 학교로서 세우셨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는 자라간다.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님과 지체되는 성도가 한 몸을 이룬 곳인데, 이 교회에서 지체는 머리로 자라간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배운다(요 4:24).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열두 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기사가 유일한데, 누가는 이를 전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신다(눅 2:41-52). 이는 성전 즉 지금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씀이다. 

☞ 다음호에 계속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윤찬식 엑소더스 야구단 회장

왕십리 사랑마을과 대만 원주민 우라이 마을간에 사랑마을 조인식과 더불어 그들의 생활양식과 신앙생활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 모여 대만에 대한 기도와 엑소더스 야구단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출발하였습니다. 2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하자 이진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예종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곧이어 영문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둘째 날 늦은 아침을 먹고 약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원주민 우라이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의 깨끗한 현대식 교회와 시골마을 이장님 같은 인상의 진천기 목사님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약 30분 가량 우라이 사람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준비한 선물을 들고 6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농구 시합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셋째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이진희 목사님이 타이페이 기차역까지 태워주셔서 기차를 타고 은복회라는 마약퇴치 기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곳은 10여명의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을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님도 마약을 하다가 목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약과 단절하고 신앙인으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농구와 찬양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은복회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식당도 마약으로 인

해 살인까지 했던 아들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대만의 마약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넷째날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 우리의 목적인 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대만팀과 야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엑소더스 야구단이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진희 목사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대만지역에 부흥이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과 부흥을 위해 새벽기도회를 만들고 저녁집회까지 매일 기도하고 사역하는 진천기 목사님을 볼 때 같은 신앙인으로써 봉사와 희생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인해 소외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외자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전 국민이 마약과 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진희 목사님과 김예종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역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모범교사 릴레이 인터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강혜숙 선생님

-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는지
10년 동안 유치부에서 봉사했습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부장이신 배중호 장로님께서 권유 하셔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전도한 친구가 빠지지 않고 출석한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제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고 가족까지도 전도했을 때입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아이들이 커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입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지 궁금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도 더욱 믿음생활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등부 최미숙 선생님



- 주일학교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셨는지요?

8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 주일학교를 섬기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8년 전 남편의 권유를 받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셋을 두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연초에 8명으로 시작했던 반 친구들이 연말에는 18명까지 부흥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새 친구들의 정착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심방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심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지 궁금합니다.

학생들과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는지

14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더 잘하는 격려로 받겠습니다.

-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사 교육을 받는 중에 영아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영아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영아부 아이들이 잘 자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큰 기쁨을 얻습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으로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말했던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전까지 봉사한 것은 잊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겸손히 충성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부 이순덕 선생님



-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유년부 허진오 선생님
7년 정도 했습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잘하라고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면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긴장이 되네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유년부에 다니는 장애자를 돌봐 달라는 아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 성가대 지휘를 권유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독창대회에 나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반주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부끄럽네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교회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실력과 믿음을 얼마만큼 키우고 성장시키느냐는 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교사가 배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주일학교 교육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 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떠한 교사로서의 활동도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비전을 품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아이들과 함께요.



-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왕십리교회 이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서기로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중등부 교사는 1989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닌데 받게 돼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등부 이 지 윤 선생님



- 주일학교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셨는지요?

올해가 7년째입니다.

- 표창을 받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교사인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맘이 가장 컸습니다.

- 주일학교를 섬기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등부 시절에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대해서도 훈련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졸업하면서부터 고등부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고등부에서 받은 것이 많아서인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학생들에게 고등부 시절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몇 년 전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퇴근 후 시외버스 타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때라서 선생님 혼자 산길 오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리 반 학생이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왔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매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입니다.(저는 이러한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거든요)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중등부 이 해 규 선생님

-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988년 최병남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 목사님께서 봉사할 것을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봉사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가르쳤던 제자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제자와 후배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 앞으로 어떤 교사로 자리매김 하실 지 궁금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노 효 철 피택장로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왕십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와 형제들은 큰 혼란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이 없었던 지난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가 하시는 눈물의 기도를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과 대학시절 그리고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교회만 출입했어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 다.

당시 부목사님의 소개로 아내 이미향 집사를 만났습니다. 결혼과 함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등부교사로 봉사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지금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 박학순 권사님과 나의 영원한 동반자 이미향 집사 그리고 두 아들 지훈과 세훈이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삼성SDS 전략 파트너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사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직분을 따지기보다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란 직분은 정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 장로님들의 투철한 믿음과 성숙된 인격을 잘 계승하여,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실 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조용히 있는 듯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있어야

지난 4월22일
임청산, 노효철,
이국영 집사 등
총 3명이
장로로 피택되었다.
이번 달에는
노효철 피택장로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할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목표보다 공적인 예배 및 교회방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순종함으로 직분자의 본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왕십리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도록 기도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과 교회 건축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시대를 잘 흡수하는 교회로, 100여년을 이어온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앞으로의 100주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100여 년 전 당시의 우리 교회가 규모면이나 시설 등 여러 면에서 엄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교회 건축이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를 자신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교회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필요할 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특성상 주로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과 많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위원장이신 김재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열 네 분의 집사님들과 같이 재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집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지하게 장부에 기록을 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많은 은혜

를 받고 있습니다.

헌금 집계를 하면서 때로는 '역시 우리 왕십리교회는 저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어린 헌금을 대할 때면 가슴이 뭉클하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글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는 위대합니다.

꿈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박병수 기자



사랑과 화평의 근원이신 성령님



박상영 목사

약 십여 개월의 한국선교훈련원(GMTC)에서의 훈련은 좋은 경험이었다. 선교에 대한 이론적 정립,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영적 체험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선교 현지의 팀 사역을 생각할 때 훈련원의 팀 사역 훈련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훈련원에는 20여 명 정도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들어와 훈련을 받았다. 각기 교단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달랐다. 목사님 가족들이 몇 가정 있었고, 교수님, 전도사님들, 선교회 간사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헌신적이고 인격적인 분들이었지만, 합숙 생활 중 여러 면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었다. 하루는 영적으로 너무 고갈된 자신을 느끼며 기도에 게을렀던 자신을 깨닫게 해 주셨다. 매우 피곤한 강훈련의 생활이었지만, 가까운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인내의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사랑과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열매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오순절적 성령의 체험

선교훈련을 수료 후 나와 아내는 선교 후원 확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루는 신문에 순복음교회의 교회성장연구원(C. G. I.)에서 하는 세계 교회성장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무언가 일본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의 핵심을 연구하고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세미나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세계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도 참여하고 있었다. 한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등단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목사님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일어나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강하신 성령님의 권능의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새로운 체험이었다. 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다. 불길 같은 성령에 휘말려 나는 나의 의식과 감각을 잃고 주님의 강하신 임재 속에 들어갔다. 나의 몸과 나의 입술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는 성령에 취해 들어갔다. 강한 전류가 나의 몸을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단순히 구름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힘으로 완전히 주장함을 느꼈다. 나는 내가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또 기억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였다고 기억한다. 아무리 중단하려고 해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과 교회 속에서 자란 나는 그러한 체험을 처음에는 영적으로 정리할 수 없었지만 성경의 오순절 사건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중요성을 더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성령님의 끊임없는 재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일본 선교의 체험을 통해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대결이며,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가능함을 믿는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교 후원자는 성령님이심을 나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길과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당시 나는 아내와 구체적으로 선교지에 들어가는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OMF 등 선교 단체를 통해 들어갈 것인지, 일본에 있는 교단에 직접 들어갈 것인지 갈등이 생겼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당시 청계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3일 간의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마침 흰 폭설이 내려 청계산은 아름다운 백설로 뒤덮였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귀가 하였는데, 은혜롭게도 집에는 일본에 계시는 L 선교사님으로부터 일본에 들어오라는 편지가 와 있었다. 2~3일 후 똑같은 편지가 선교사님으로부터 계속 도착했다. 나는 이 부르심이 주님의 인도라고 확신하고 총회 선교회(G. M. S.)와 일본 현지교단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다. 1991년 드디어 총회파송선교사(G. M. S.)로 나와 아내는 일본에 파송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 초청장이 왔고 종교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종교비자 받기가 어려웠지만 의외로 비자가 쉽게 나와 일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총신 동기 목사님들은 일본 선교 후원을 조직하여 후원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물가가 몹시 높는데, 그 생활비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거처할 처소를 위한 자금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와 아들 다니엘의 돌 잔치를 겸하여 한 그날, 여러 목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에서 출발하여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동해 위를 지났고, 드디어 일본 본토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후지산이 밤틀만한 크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사카의 상공을 비행할 때 나는 창문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오사카 근역의 산과 숲과 바다와 도시와 집들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저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일본 선교의 대원 로이신, 지금은 이미 소천하신 존경하는 K 목사님께서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 K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였다.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동안 여독을 풀 후, 여러 교회의 초대를 받아 선교사 인사 겸 설교를 하게 되었다. 어느날 K 목사님께서서는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나와 안사람을 식당으로 초대하였다. K 목사님께서서는 식사 후 사택을 보러 가자고 하였다. 지금 오사카 남부 아비꼬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두 개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더러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심을 느낀다고 간증하셨다. 우리 가정의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을 방문해서 기부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즉시 그것에 감사하여 사택 마련을 위해 큰 액수를 헌금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오사카 남부 아비꼬의 주택가의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도 같은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이사하였다. 곧 예비된 성도님 몇 분을 만나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예비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듯, 하나님은 선교 초기부터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세월의 깊은 맛

최소영

내일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미역 한 봉지와
소고기 반근을 사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엄마 생각을 하며 걸어 봅니다.

함께 살며 힘이 되어 드리기가 보단
오히려 짐이 된 딸인데
엄마에겐 여전히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가 봅니다.

미역국을 오래오래 끓여야
제 맛이 우러난다 해서
약한 불에 올려 두고
계속 끓여 봅니다.

새벽녘에 끓일까 하다가
아무래도 새벽잠 없는 엄마를
앞설 자신이 없어 미리 끓이는데
집안 가득 진동하는 참기름 냄새에
주무시던 엄마가 깨실까 조마조마합니다.

한번도 자식들 생일을
잊으신 적 없는 분
우린 엄마의 생신을
한두 번 놓친 게 아닌데…….

뽕양계 국물이 우러나긴 했는데
한술 떠서 맛을 보아도
엄마가 끓여 주신 그 맛이 아닙니다.

엄마 또대체 뭘 넣는지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맛은 천양지차입니다.

깊은 맛이 우러나는 엄마의 미역국처럼
제 삶은 언제쯤 깊은 맛이 날는지…….
끓고 있는 미역국술 앞에 서서
기왕이면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야무진 생각을 해 봅니다.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듯
미역국의 깊은 맛을
좀처럼 흉내 낼 수 없듯
제 삶은 아직도 어딘가 어설피고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러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월이 아닐까라는…….
어느 날,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제 삶의 이야기도
끓여 놓은 미역국의 맛도
엄마를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국술의 물을 끄고 이만 자야겠습니다.
내일 하루라도 엄마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식탁을 차려 보려고요.

Russia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



김남수 선교사

하나님의 변화와 행통의 복이 믿음의 동역자와 섬기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왕십리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린 후 4월 12일 속초를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입항하였습니다. 아직은 수습기간이라 구체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에서 터전 잡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최근 심한 인플레이 현상으로 인하여 물가가 많이 올라 집값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감사하게도 깨끗하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주인도 인상 좋고 마음씨 좋은 부부라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돕는 분들을 만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집을 정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집 주소는

**Владивосток Невельско
го 1-328**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올리짜. 네벨스꺼버 1-328)

▶ 러시아에서 정착하기

가) 벨리까야 베라교회에서 협력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50여명의 성도로 구성된 러시아 현지인 교회입니다.)


나) 저희 부부는 7월부터 극동대학교에서 러시아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 다) 아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9월 학기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 라)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문화사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1. 주님의 마음으로 러시아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파송과 후원교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주님의 마음으로 러시아와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4.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항상 사역과 사람과 물질의 형통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음료는 실제 제로 칼로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100ml당 4kcal 이하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음료는 '0kcal' 라고 표시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음료의 칼로리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료수 500ml에 15kcal 이하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음료는 0kcal로 표시하여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음료를 여러 병 마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다.


무 트랜스 지방

식품에 표시된 무 트랜스지방 표시도 마찬가지이다. 판매되는 음식물 1회 섭취량에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이하이면 한 통이 몇 g이든, 몇 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든 '무 트랜스지방' 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무 트랜스지방' 이라는 말이 식품에 표시되고 있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가 의무화되고 난 후,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무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함유 0' 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트랜스지방 덩어리인 마아가린에도 1회 섭취량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이 0.5g이하라는 이유로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알아야한다. 마아가린이 트랜스지방 덩어리라는 것을.

설탕

설탕에는 정제설탕과 비정제설탕이 있다. 정제설탕은 보통 우리가 먹는 설탕이다. 즉, 흰설탕, 황설탕, 흑설탕 모두 포함해서 정제설탕이라고 한다. 비정제설탕은 정제하지 않은 설탕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설탕으로는 마스코 바도 설탕(사탕수수를 압착해 가열 건조함), 유기농 설탕(원당)이 있다. 이런 비정제설탕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천연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제설탕을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흑설탕은 정제삼온당으로 부른다. 그것은 세 번 가열한 정제설탕이라는 뜻이다. 즉 백설탕을 가열해 색깔이 누렇게 변화시킨 것이 황설탕이고, 가열 후 캐러멜 색소를 첨가한 것이 흑설탕이다.

마치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덜 정제한 듯이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백설탕보다 첨가물이 더 들어가 식품들이다. 실제 비정제설탕(원당)은 황색을 띠고 있고, 설탕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백설탕을 가열한 황설탕이 비정제설탕이 가지고 있는 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황설탕은 정제설탕이며, 정제설탕을 가열한 것이다. 이 정제 설탕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인체 내에서 급격하게 당 수치를 높인다. 

지은정 기자

식품포시에 대한 오해, 바로 알고 바로 먹자

제로 칼로리, 무 트랜스지방, 황설탕



첫째 주

사도신경

찬 송 93(구93)

말 씬 빌 3:12~16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
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
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
할 것이라

주기도문

푼대를 향하여

다 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을 만난 후 바울은 30년간을 사
역했습니다. 그가 그 짧은 시간
에 세계복음화의 초석을 다져놓을 수 있
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하는, 그
의 놀라운 영적 집중력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신 목
적'을 푼대로 삼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
늘에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까지 다 하여 전력 질주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은 어느 분야건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입
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잠재된 에너지
의 양은 비슷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하찮은 일
에 그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그러나 나는 단 한가지 일, 즉
그림에만 내 에너지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림을 위해 다른 모
든 것은 희생될 것이며, 거기에는 물론 나 자신까지도 포함 된다"
집중력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집중력의 전제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지켜 본 결과, 나는 그들이 모두 뚜렷한 목표를 가
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 어떤 방해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을 그
목표에 맞추었으며, 그 목표를 향해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어려운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 한 달 동안 당신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추구해야 할 영육간의 '푼대'
는 무엇입니까?

.....
.....
.....

사도신경

찬 송 183(주172)

말 씬 샷 211~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기도문

치와 고통에 대한 감각까지 점점 무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신앙과 삶 속에서 단호히 끊어 버려야 할, 악순환의 고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

.....

.....

단호히 끊어 버려야 할 악순환의 고리

사 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대엔 ‘뱀죄-진노-징계-부르짖음-구원-재뱀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심령은 악화되어 가고 죄는 확대 재생산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제2세대는 그래도 여호와와 행하신 큰일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 사사들을 통해 나타난 여호와와 큰일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는, 더 패역한 제 3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나선형 하강곡선’을 그리고, 날개도 없이 추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더 큰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위기신앙’의 전형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행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그 불행이 더욱 심화된 형태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죄가 반복될수록 신앙 양심엔 더 딱딱한 군살이 박혀가고, 하나님의 징계에마저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수

셋째주간

사도신경

찬 송 323(구355)

말 씬 샷 51~12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깟지어다 깟지어다 드보라여 깟지어다 깟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주기도문


깟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감격에 겨워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 드보라를 봅시다. 우리 삶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 이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가 그토록 감격스러운 것은 승리 이전의 삶이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인들의 기세에 눌려 마음 놓고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고, 더 이상 활기찬 일상도, 어린 아이의 웃음도, 내일을 향한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택했던 ‘새 신’이 그들을 위해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 다. 땅과 산을 진동시키셨던 출애굽 때의 그 권능을 가지고 그를 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 다. 드보라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와 전사가 되어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고, 승리의 노래가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처럼 살려다가, 가나안인에게 눌려 살게 되고 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웬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됄을 당당히 드러내며 대로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을 감춘 채 오솔길로 피해 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복해야 할 세상에 오히려 정복되어 버린 듯한 우리, 나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 또 다른 드보라를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당신이 “깟지어다! 일어날지어다!”라고 외치며 떨치고 일어나 힘 있게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넷

째주간

사도신경

찬 송 436 (구 493)


말 씌 샷 71~8

여름비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던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라

주기도문

건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조건들의 99%가 사라져가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은 99%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1%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잠시 몸만 빌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악의 최선일 수도 있다

하 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니! 당시 이스라엘군은 3만 2천명뿐이었고, 미디안군은 13만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다 나가서 싸운다 해도 1대4의 벽찬 전투가 될 텐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 수준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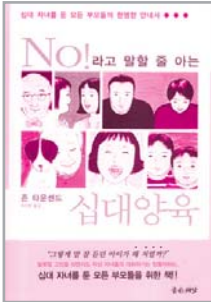
기드온은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만 2천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1대400으로 싸워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은 왜 99%나 돌려보내고 1%만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결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대4로만 싸워 이겼어도, 아니 1대13으로만 싸워 이겼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대400쯤 되면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조

冊 이랑 樂

No라고 말할 줄 아는 십대양육 (BOUNDARIES WITH TEENS)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왜 저렇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였는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십대의 자녀에게 다가가기 힘들어 하고 벅을 느낀다. 아이들과 감정 상하며 다투지 않고도, 아이도 존중하고, 부모 자신도 존중하는 양육법을 소개한다.
부모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후로, 많은 십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복하게 성인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다수는 부모들과 정서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였다.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 역자 : 존 타운센드 / 주지현 · 출판사 : 좋은씨앗 · 가격 : 10,000원



스텝 바이 스텝 -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기 (Step by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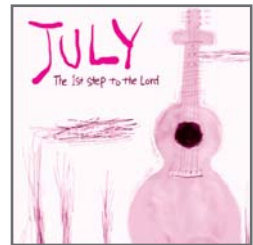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이 책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속에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지혜와 인도하심의 근본이자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 이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고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 저자 / 역자 : 제임스 C. 페티 / 김창동 · 출판사 : 도서출판 디모데 · 가격 : 12,000원

JULY - 유리상자 이세준 + 함춘호

감미로운 목소리의 유리상자 이세준과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프로젝트 그룹 JULY를 만들어 그 첫 음반을 발표했다. 유리상자(이세준)와 시인과 총장(함춘호)이 그랬듯이, JULY도 좋은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앨범의 판매수익은 전부 '사랑의 안경봉사 밝은세상 나누기'에 사용된다고 한다.

· 가수 : 이세준+ 함춘호 · 기획 / 배급 : Bee Company / 서울음반 · 가격 : 10,000원



디사이플스 라이브 3집 - Hero (2CD)

우리나라의 모던워십의 대표 주자인 '디사이플스(Disciples, 제자들)'의 첫 실황 음반이 나왔다. 기존의 곡들에 새로운 편곡을 더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벅찬 감동을 안겨 준다.

· 가수 : 디사이플스 · 기획 / 배급 : 디사이플스 / 인피니스 · 가격 : 13,000원



여전도 연합회

제 20회 여름 수련회

8월 16일~18일 백봉산기도원에서 ‘여성들이여,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주제로 최정명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성경공부 시간 뿐 아니라 찬양배우기, 각 전도회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장기자랑은 각 여전도회별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저마다의 솜씨를 뽐내는 시간이었으며

연세가 높으신 전도회일수록 재치와 발랄함이 살아나는 장기를 준비하였다. 특히 1등한 팀은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에 왕십리교회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이 주어져서 자부심도 함께 가지는 순서였다. 마르다여전도회가 1등의 영예를 안았다. 수련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참석한 여전도회 회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사회봉사위원회

장애우 여름수련회

장애우 쉼터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름수련회를 본 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오치웅 담임목사와 이혜승 목사가 ‘하 나님께 영광’과 ‘예수님의 참제자’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

를 했다.

또 △성극공연 △십자가와 기도문 액자 만들기 △구연동화 △찬양&파워댄스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병수 기자

제 1 교육위원회

초등부 여름수련회

7월 26일 ~ 28일 백봉산 기도원에서 여름성경학교 총주제인 “나는 주님의 제자”에 기초하여 「예수님 따라 떠나는 선교 여행」(요한복음 15장 8절)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렸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피가 필요했는지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데에 그 첫 번째 목적과 더불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는 것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최종 목적이었다.

펼쳐진 프로그램 내용으로 첫날은 Mission-trip 으로서 용인기독교순교자 기념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찾아가서 여름성경학교 개최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선교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왕초 컵이라 하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저녁 예배 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란 제목으로 담력훈련을 실시하였다. 내용은 지도를 보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찾아다니며 미션을 해결하고 7개의 전신갑주 보물을 찾는 내용이다. 셋째 날은 왕초컵 결선 등 갖가지 시상식을 실시했다.

교사와 학생들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감동과 열정이 가득 한 선교여행의 경험이었다.

최지영 기자

제 1 교육실행위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2007 왕십리 중등부 왕의 자녀들(이하 왕중왕) 여름 수련회가 8월 8~11일까지 백봉산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박충권 목사를 주강사로 모셔서 예배소서 4장 22~24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성경적 바른 자아상을 주제로 들은 3일 간의 저녁 특강은 왕중왕 친구들이 청소년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주제와 관련하여 꾸며진 프로그램(대중매체 디스리기, 자살 충동 이기

기, 금주 금연 특강, DISC 기질 검사)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DISC 기질 검사 시간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성향을 알아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왕중왕 친구들이 앞으로 서로를 더 잘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윤혜 기자

제 1 교육위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

지난 8월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북 고창군 흥덕면 광명교회에서 30여명의 고등부 학생, 20여명의 교사와 그가족들이 모여 2007년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자연 그리고 나와 연합'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선운산 계곡과 동호 해수욕장에서의 자연 체험, 그리고 인간관계 훈련, 미당생가에서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 저녁마다 들려지는 찬양 콘서트,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결단과 헌신의 시간들이 이어졌으며, 특별히 주제 성구인 누가복음 10:27절을 통해 김석호 전도사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게 자신이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는 달리 3학년 학생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거리가 먼 관계로 출발부터 주일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빡빡한 프로그램의 진행보다는 한여름 휴식과

은혜의 사경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유익하였다. 최지영 기자



제 1 교육위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

'하늘의 별과 같이'란 주제로 열린 2007년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지난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동강이 있는 강원도 영월의 맑은 자연에서 있었다. 이날 저녁 집회 때에는 쏟아진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청년부 수련회 중 가장 많은 150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주강사였던 김귀라 목사는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전, 그리고 청년들

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에 대해 도전하며 말씀을 증거하였다. 다음날에는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쉼을 얻으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100주년 기념대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수련회를 마치며 청년들은 벌써 다음 달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문승환 기자

전도 양육 위원회

사랑마을 성도의 감사와 간증 페스티벌

지난 6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전도 양육 위원회 주최로 처음 실시된 사랑마을 성도의 감사와 간증 페스티벌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최경호 안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왕십리교회 성도들 중에 환갑 또는 교회연과 산수연 그리고 각종 기념일 일정에 맞추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간증의 시간을 갖기 원할 경우에 본 행사를 교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시행되었다. 사랑마을 성도의 감사와 간증 페스티벌 행사가 앞으로도 구원의 기쁨과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전도의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기를 바란다.



박충권 목사

화보로 보는 이모저모



ㄱ



ㄴ



ㄷ



ㄹ



ㅁ



ㅂ

- ㄱ. 장애우예배의 여름수련회
- ㄴ. 8월 사무엘·다니엘산상기도회(정릉청수장)
- ㄷ. 관문점교회 방문
- ㄹ. 유년부 수련회
- ㅁ. 유년부 수련회 간식시간
- ㅂ. 청년부 여름 수련회 찬양시간
- ㅅ. 고등부 여름 수련회 예배시간



ㅆ

